

# 한하운 시의 '길'과 내면의 상처 치유\*

윤수하(전북대)

## 〈목 차〉

- |                  |                     |
|------------------|---------------------|
| 1. 서론            | 3. 고통 극복과 중간 대상 '길' |
| 2. 고통의 몸과 정신화 과정 | 4. 결론               |

## 1. 서론

우리 문학사에 최초 한센병 환자 시인으로 기록된 한하운은<sup>1)</sup> 1949년 『신천지』에 '나시인 한하운 시초'라는 제목을 붙여 13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한다. 등단한 첫째, 『한하운 시초』를 발행했고 1955년 『보리피리』, 1956년 『한하운시전집』, 1958년 수필집 『나의 슬픈 반생기』를 간행한다.

김윤식은 한하운 시를 일컬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을, 그 ‘문둥이’라는 관시를 떼버리고 바라보는 안목이, 그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9438)

1) 1920년 함경남도 함주군 출생. 하운(河雲)은 시호, 본명은 한태영(韓泰永)이다.

평을 내린다. 그러한 평가는 ‘한센병 시인’이라는 명명이 한하운 시에 대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하운 시에 대한 초기 평가는 주로 전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의 문학성이나 주제 의식은 평가 절하된 바가 있다.

최근 들어 시의 완결성에 주목한 연구<sup>2)</sup>와 정치성과 역사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sup>3)</sup> 그와 함께 한하운 생애에 대한 증언이나 담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4)</sup> 또 한하운의 병에 관한 연구도 눈에 띈다. 한하운의 병은 신체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역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가 있으며 한하운의 아픈 ‘몸’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5)</sup> 특히 임지연은 그의 논문을 통해 한하운 시의 훼손한 피부에 대한 표현에 주목해 그러한 표현이 “서사적 잔해”를 보존하는 방편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6)</sup> 임지연의 연구는 ‘몸을 통한 서사 방식’을 참조해 아픈 몸은 타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고 서술하며 ‘문둥이’ 몸을 스스로 치료하고 긍정화하는 과정을 기술했다.

- 
- 2) 조은하, 「한하운의 시의식 변모 양상」, 『한국시학연구』 56, 한국시학회, 2018.
- 3) 김신정, 「고통의 객관화와 “인간”을 향한 회구-한하운의 삶과 시」, 『현대문학의 연구』 7, 한국문연구학회, 1996. 최명표, 「한하운 시의 정치시학적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 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한순미, 「‘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 『사회와 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2012. 박연희, 「한하운 시에 나타난 월남민 의식과 문둥이 표상」, 『사이』 2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정유선, 「한하운, ‘시인’과 ‘국가」, 『한국시학연구』 58, 한국시학회, 2019.
- 4) 김려실, 「냉전과 박애」,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오덕애, 「근대의 학 담론이 ‘한센병’에 미친 영향 -한하운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학회, 2019. 최원식, 「한하운과 『한하운 시초』」,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정우택,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박민규, 「‘한하운 사건’ 이후의 한하운과 시적 세계 변모」, 『우리문학연구』 47, 우리문학회, 2015.
- 5) 한순미는 한하운의 몸을 “짐승으로서의 몸의 위치를 민족, 국가, 역사 전체로 확장한다”고 기술했다. 앞의 논문, p.307.
- 6) 임지연, 「아픈 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하운 문학에 나타난 고통과 치유의 자기 서사」, 『한국언어문화』 77,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이와 같은 연구는 한하운의 시에 표출된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몸'의 서사를 연구하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몸'이 겪어내는 병증의 고통보다 더 심오한 심리적 고통은 문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며 한하운 문학의 원류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적 자아는 고통을 주는 냉혹한 현실 공간인 방랑의 기산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갈 수 없는 공간이나 만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실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배가되고 자신에 대한 증오감이 깊어진다. 그러나 심리적 인식처이자 궁극적 피정의 대상인 고향 또는 가정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중간 대상은 시적 자아의 내면과 연결되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길'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적 자아에 심리적 위로를 주는지 시적 형상화에 주목했다. 또 시적 표출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을 읽어내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 2. 고통의 몸과 정신화 과정

### 2.1. 변형되는 신체의 정신화

한하운은 인생의 대부분을 한센병의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러한 한하운에게 시는 자기 고통을 알리고 경감하는 매체였다. 또한 생존의 도구였으며 지적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였다. 한센병을 앓는 신체 자체가 주는 고통도 극심했지만 변형되는 신체로 인해 겪는 박해와 불평등은 자존감 박탈과 자기 비하를 가져왔다. 한하운 시에는 고통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형되는 신체를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악타르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시 쓰기를 든다. 무의식을 묘사하고 정신의 비언어적 기질을 정신화(Mentalization)한다.)<sup>7)</sup> 시 쓰기는 대상에 대해

7) 정신화(Mentalization)는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느끼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일련의 조작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이미지화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낸다. 환상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기보다 현실의 처지에 놓인 자신의 형상을 내면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그러한 환상은 내면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든다. 개인이 상처를 직시하는 용기가 없을 때 시는 대상을 직시하기 쉬운 상태로 조작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는 내면의 고향을 발견한다. 내면에서 겪는 투사과정은 자아는 고통에 단련시킨다.<sup>8)</sup> 그 과정은 고통의 신체를 지닌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한 번도 웃어 본일이 없다  
한 번도 울어 본일이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러한 슬픔에 굳어 버린 나의 얼굴

도대체 웃음이란 얼마나  
가볍게 스쳐가는 시장끼냐

도대체 울음이란 얼마나  
짓궂게 왔다가는 포만증이나

한 때 나의 푸른 이마 밑  
검은 눈썹 언저리에 배워 본 덧없음을 이어

오늘 꼭 가야 할 아무데도 없는 낯선 이 길 머리에  
찢름 찢름 다섯 자보다 좀 더 큰 키로 는 졌다

---

다. 정신화는 거울 뉴런을 기반으로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학습하기도 한다. 자아와 타아의 정서적 상태의 표상(representation)을 만들고 이용하는 능력이다. 서영주, 김영근,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 (3), 2018, 775-798쪽.

8) Salman Akhtar, Mental Pain And The Cultural Ointment Of Poet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000, p 236.

어쩌면 나의 키가 끄는 나의 그림자는  
이렇게도 우뚝히 온 땅을 덮는것이나

지나는 거리마다 쇼우 윈도우 유리창마다  
얼른 얼른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나의 얼굴.

-〈자화상(自畫像)〉

‘웃어 본일’과 ‘울어 본일’이 없는 얼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시적 자아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만을 느끼며 그로 인해 슬픔으로 굳어버린 얼굴을 갖고 있다. 웃음을 ‘시장끼’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웃을 일이 희귀하다는 것이고 울음을 ‘포만증’이라 표현한 것은 울 만한 일이 너무 많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른 이마’와 ‘검은 눈썹’은 병에 걸리기 전의 얼굴 형태다. 그래서 ‘덧없음’조차 ‘한 때 배워 본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는 ‘가야 할 데가 없는’ 낯선 거리에 서 있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키가 끄는 나의 그림자’로 존재한다. 그것은 슬픔으로 변형된 자신의 환상이다. 시가 만들어 내는 자신의 환상은 존재의 내면에 도사린 슬픔과 처지를 직시하도록 이끈다. 집 없이 방황하는 처지여서 거울을 앞에 놓고 얼굴을 들여다볼 수도 없으며 간혹 ‘쇼우 윈도우 유리창’에 비치는 얼굴을 스치듯 보게 된다. 그러나 그 형상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상점과 대비되어 낮설고 초라하다.

변형된 얼굴과 신체는 새롭게 형성되는 자기 표상(self-representation)<sup>9)</sup>이다. 자신의 이미지가 붕괴되는 과정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시작 단계다. 새롭게 변화하는 신체는 ‘문둥이’라는 이미지와 겹치게 된다. 자아가 갖든 자기 몸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둥이’의 이미지는 쉽게 변형되는

9)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자기에 대하여 자아가 자기 내부에 가지는 무의식적, 전의식적, 혹은 의식적 표상.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겨난 자기에 대한 생각, 느낌, 감각, 기억, 의미 등을 말한다. 미셸 클레어, 안석모 역,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박학사, 2014, 185쪽.

피부로 이루어져 있다. 빠른 기간에 변형되는 외형은 빨리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로 내뿜다. 자아는 변경된 자기 표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기 표상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자아는 자기를 객관화하고 대상화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태생과 생애 동안 얻을 수 있던 혜택 또는 조건, 가치를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에 대한 애착 또한 포기해야 하는 자기부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쓰레기통과  
쓰레기통과 나란히 앉아서  
밤을 새운다.

눈 깜박하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눈 깜박하는 사이에  
아직도 살아 있는 목숨이 꿈틀 만져진다.

배꼽 아래 손을 넣으면  
37도의 체온이  
한 마리의 썩어가는 생선처럼 몽클 쥐어진다.

이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나의 목숨은  
아직도 하늘에 별처럼 또렷한 것이냐.

- 〈목숨〉

이 시의 '쓰레기통'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묘사이다. 버려지고 더러워진 자신의 처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쓰레기통과/쓰레기통과 나란히 앉아서'는 자신의 지위가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통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하된 것을 의미한다. 또 쓰고 버려진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통은

자신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란히 앉아서/ 밤을 새운다'는 상황에서 시적 자아는 쓰레기통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와 동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밖에서 밤을 새우며 맞게 되는 추위와 허기로 '눈 깜박하는 사이' 죽을 것 같지만 곧 '살아 있는 목숨'을 확인한다. 스스로 '37도'의 체온을 확인하며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생명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도 몸에 대한 경외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것이다. '죽어 버리는 것' 같은 처지에서 '배꼽 아래 손을 넣어' 체온이 느껴지는 '한 마리의 썩어가는 생선' 같은 자기 성기를 쥐어 본다라는 것은 아직도 생산성이 남아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생을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이라고 칭하며 '쓰레기통' 같은 신체를 갖고 있음에도 살아있음에 애착을 갖는다. '쓰레기통'과 변별되는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목숨을 '하늘에 별로 인식하는 것이다. 별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지 못한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빛을 발한다. 시적 자아의 '목숨'이 밤하늘의 어둠처럼 깊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으나 생명은 빛을 발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2.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기 투사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별이다 문둥이다.

-〈삶〉, 부분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별이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별(罰)〉, 부분

평범했던 생애는 급작스럽게 가치 없는 존재로 내몰린다. 힘든 병을 앓고 있지만 변형되는 신체 때문에 병상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 다니는 어려운 처지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시적 자아가 겪어내야 할 현실이다. 사회는 냉정하고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린 시적 자아는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택한다. ‘문둥이’라고 스스로 자기 투사하는 것은 타인의 박해와 멸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문둥이’라는 새로운 신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투사의 과정이다. ‘문둥이’로 살아가는 시적 자아는 사회적 공간도 아니고 그 외의 공간도 아닌 이질적인 공간에 머문다. ‘법문의 어느 조향’에도 찾아볼 수 없는 ‘죄’는 그만큼 ‘문둥이’라는 명칭과 멸시가 불합리하고 불가항력의 상태임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벌’은 곧 ‘죄’이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지만 벌을 받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변호할 길’이 없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둥이’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되고 그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되는 벌을 받는 것이다.

저 길도 아닌  
이 길이다 하고 가는 길.

골목 골목  
낮선 문패와  
서투른 번지수를 우정 기웃거리며.

이 골목  
저 골목  
뒷골목으로 가는 길.

저 길이 이 길이 아닌  
저길이 되니  
개가 사람을 업수녀기고 덤벼든다.

-〈막다른 길〉



이 시의 제목은 '막다른 길'이다. 더 이상 갈 곳 없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사람들의 시선과 냉대가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 이 시의 '길'은 인가에 놓인 길이고 골목과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시의 배경은 '문둥이'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회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적 자아의 생과 괴리된다. '문폐'나 '번지수'는 사회인의 상징이다. '문폐'나 '번지수'가 없는 시적 자아의 생은 이미 다른 공간의 생이다. 사회에 속해 있으나 사회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을 갖는다. 그것은 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닌 다수의 냉대와 횡포에 쫓겨 스스로 택한 선택적 괴리이다.

행여 타인이 행하는 멸시와 냉대의 눈초리와 마주칠까 봐 '뒷골목'으로 다니는 상황에서 개와 마주치게 된다. '개'는 집을 지키는 존재다. 개의 특성상 자신보다 우위의 대상에게 달려들지 않지만 골목을 지키는 개들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방문객을 물거나 짖어서 스스로 방어한다. 사람이 아닌 동물조차 업수녀 기'는 것은 개의 기준에서 본 관점이 아니라 시적 자아의 관점으로 본 것이다. 시적 자아가 인식하는 자기 표상이다. '저길'은 '底길'로 낮은 곳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길은 시적 자아의 사회적 위치를 투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장소이다. 시적 자아의 관점에서 동물조차 천시하고 덤벼드는 길은 시적 자아의 인식하는 신분 변화를 의미한다.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외모와 개조차 업수여기는 초라한 행색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신화 과정의 일부이다. 그 과정은 모르는 대상뿐 아니라 친밀했던 대상에게도 해당된다.

눈여겨 낮익은 듯한 여인하나  
어깨 넓직한 사나이와 함께 나란히  
아가를 거느리고 내앞을 무난히 지나간다

- 〈여인〉 중략

'눈여겨 낮익은 듯한 여인'은 그냥 일상 속의 지인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이다. 그런 대상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내와 아이를 거느리고 시적 자아의 앞을 무심하게 지나간다. 표정도 바뀌지 않고 무심하게 지날 수 있던

것은 급격히 변형된 얼굴과 달라진 행색 때문이다. 친밀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시적 자아는 새로운 자아의 사회적 위치를 깨닫게 되고 자기 투사의 계기가 된다.

### 3. 고통 극복과 중간 대상 ‘길’

#### 3.1. 어머니와의 애착과 자기 확신

안정된 애착은 타인과의 갈등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sup>10)</sup>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애착 현상 중에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이 어머니와의 애착이다. 애착이 깊을수록 고통 극복에 대한 힘은 강력하다. 시적 자아는 불가항력의 외상을 겪는 상황과 더 나아가 신체가 변형되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운명에 대한 원망 또는 자신을 향한 증오보다 아직도 ‘목숨’이 있는 신체에 대한 애착을 선택한다. 그것은 신체의 근원인 어머니와의 애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실행하는 안정된 애착은 극복의 원천이 된다. 개인의 정신화 능력은 어머니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안정적인 애착은 애착 대상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애착 외상이나 관계적 외상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1)</sup>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10) 이문화·이수림, 「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2020, 604쪽.

11) 정신 역동적 심리 치료와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에서 정신화 능력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자기와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와 수용, 성찰하는 능력이다. 포나기(Fonagy)는 정신화 능력은 안정 애착과 연관이 있다. 피터 포나기, 반건호 역,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 빈센트, 2005.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뿔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신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흠으로 돌아가신  
 말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

시적 자아는 어머니의 출산 과정을 묘사하며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고 표현한다. 출산의 고통을 묘사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표현이다. 그 후 어머니는 '아들 뿔다고 기뻐한다. 그 시대에 득남은 어머니의 자부심이었고 그러한 어머니의 표현하지 않는 자부심은 생존했던 것만으로도 자아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상실했지만, 시적 자아는 자기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머니가 '날 두고' 가시며 슬퍼했기 때문이다. 애착의 근원이었던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산통이나 득남의 자부심 외에도 임종 직전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착은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흠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지만 자신을 사랑했으며 마지막까지 지지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을 가질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만으로도 자기 확신은 가능하다. 자신의 존재가 특정한 대상에게 본인의 생존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근거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흠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소멸되지 않았고 흠 속에 잔존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이다. 흠을 포함하는 '길에 대한 애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흠은 존재의 흔적을 지우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자연의 근원은 흠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멸된 것이 아닌 자신의 근방에 머무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한 어머니의 애착으로 탄생한 신체는 어머니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쓰레기와 동일시되는 '문둥이'지만 별처럼 빛나는 '목숨'을 가졌다는 자존감을 갖게 된다.

간밤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한 마디  
머리를 굽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찢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 〈손가락 한 마디〉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확신은 한센병 증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신체에도 애착을 갖게 한다. 그래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37도의 체온'을 지닌 신체뿐 아니라 병증으로 생명력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신체에도 애착을 갖게 된다. 떨어져 나간 신체를 '깊이 깊이 땅'에 묻는 행위는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을 다한 신체를 땅으로 묻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자 애착 대상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양분을 나눠서 생명을 키워내는 흙처럼 어머니는 아들을 키워냈고 다시 자연으로 환원 되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시적 자아가 흙에서부터 사회로 돌아가는 자양분을 얻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병증으로 떨어져서 나가며 변형되는 신체는 정체성 또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쁜 몸과 나쁜 환경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다. 그러나 애착 대상이 귀속한 대상 상징인 흙은 자연에 속해 있으며 시적 자아가 속하고자 소망하는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인간 사회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박해하는 대상이지만 속하고자 희망하는 소망의 대상이

기도 하다. 애착 대상을 대신하는 흠은 정신적 자양분을 주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중간 대상 transitional object'<sup>12)</sup>이다.

### 3.2. 자존감 회복과 생존의 '길'

자연을 이루는 원천이자 생명의 근원인 흠은 만물을 생성하는 본질적 요소이자 어머니를 떠올리는 요소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다해 흠으로 돌아갔고 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 모두가 돌아갈 종착지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天安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

12) 중간 대상은 유아 최초의 소유물로서, 불안정한 상황, 어머니가 옆에 없을 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냄새나 느낌, 또는 그러한 대상을 말한다. 중간 대상은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대신 위로하고 달래주어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을 주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신의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의 중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비드 월 브리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千里 먼 전라도 길.

- 〈전라도 가는 길〉

흙은 대상에 대한 불평등 없이 모든 대상을 받아들인다.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듯 흙은 무한한 포용력을 갖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길과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사회로 나섰듯 길은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며 인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대신하는 흙으로 구성된 것이 길이다.

그러나 길은 한센병이 낫지 않는 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랑의 경로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은 쉴 곳 없이 이어져 '숨막히는 더위'속에서도 이어진다.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동질감으로 반가워한다. 목적이 없어도 '문둥이'들은 길에서 만난다. 가정을 이루고 정착을 하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은 '문둥이'들은 길에서 만나고 길에서 안부를 묻는다. 숨 막히는 더위에도 쉴 틈 없이 걷는 길 중에서 다른 '문둥이'를 만나기도 한다. 완치가 힘들고 생존하기 힘든 같은 병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된다. 길에 소속된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알고 한편으로 같은 처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병든 몸으로 절름거리며 걸다가 발가락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길은 생명의 근원지인 어머니, 또는 고향과 연결되어 있고 동질적 동지를 만날 수도 있는 곳이다. 특히 돌아가고자 희망하는 평범한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피-르 날니리.

-〈보리피리〉

이 시에는 그리움의 대상인 '봄 언덕'과 '고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자신의 감정인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리움의 행위도 표현하고 있다. '피-르 날니리'는 보리밭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성어다. 이 시의 정황상 어린 시절부터 붙어본 경험이 있는 놀잇감이다. 보리피리는 음악 형식이나 연주 기교가 필요 없는 악기다.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소리 또한 단순하고 명확해서 본능적인 감각에 가깝다. 보리피리 소리는 부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음향이나 음질이 다르다. 편안한 감정 상태에서는 호흡이 길어지므로 길고 안정적인 소리가 나오며 격한 감정 상태에서 호흡이 짧아지면 소리도 짧아진다.

연주를 이용한 놀잇감은 감정에 대해 역동적이다. 연주 놀이를 통해 자기 탐색과 창조적 경험이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또는 성인이 된 후에도 놀이를 통해 자아 발견이 가능하고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sup>13)</sup> 특히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음악을 이용한 놀이는 예술적 승화와 연결된다. 그 표현은 소리의 싸개(Sound Envelope)로<sup>14)</sup> 내면에 존재한다. 소리의 싸개는 고통에

13) 위니컷은 놀이와 의사소통에 대한 임상적 경험을 통해 놀이가 자기 탐색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도널드 위니컷,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90-92쪽.

대한 심리적 방어 체계이자 표현 체계이다. 프로이트는 소리를 내는 행위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sup>14)</sup> 소리의 싸개는 젖먹이일 때부터 세상과 자기 사이의 소통 경험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융합의 형태로 내면에 존재한다. 소리의 싸개는 고통에 대한 자기표현에 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도록 지지 기반이 된다. 그래서 절망, 실패 등 사회적 패인의 요소가 음악적 놀이를 통해 해소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본능적인 자기감정 표현은 내면에 숨은 고통을 끄집어내는 효능을 발휘한다. 음성적 소리뿐 아니라 일정의 행위를 통해 소리를 내는 것은 욕구에 대한 표현이다.

각 연마다 그리움의 공간인 봄 언덕 - 꽃청산 - 인환(人寃)의 거리로 연결된다. 그리움의 공간은 어린 시절을 보낸 봄 언덕이나 꽃 청산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 시절을 보낸 인환의 거리와 인간사가 얽혀 있는 사회 공간까지 시적 자아가 겪어온 공간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다시 현실 공간인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보낸 공간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기산하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방랑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움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감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한 감정이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감정을 토로할 수 없다. 또 고향을 상징하는 공간이나 인환의 거리인 사회적 공간을 모두 그리워하고 있음은 유아기와 소년기 모두 생애에 대한 반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유년기를 안정된 애착 안에 보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애착을 포함한 유년의 정서 공간은 개인 정서를 지지하는 감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산천은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14)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인간희극, 2008, 251쪽.

15) 디디에 앙지외, 위의 책, 263쪽.



고향도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정말 범조문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인생도 알듯하는데

산천초목을 엮록소 싱싱하게 푸르려  
하늘과 바닷빛  
아스라한 하늘 끝간 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생명이 넘쳐 흐르고.....

-〈귀향〉

시적 자아는 산천과 고향을 의인화하고 있다. 조건 없이 반기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외형이 변한 자신을 반긴다고 생각한다. 법이나 자유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온 고향 산천은 이전과 다른없는 풍경으로 남아 있어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된다. '산천초목'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게 변함없이 안정적인 풍요로움은 변함없는 애정을 베푸는 어머니의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과 견줄 수 있다. 싱싱하고 푸른 산천초목과 하늘은 끝없는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자연의 미적 순환을 시적 자아는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생명이 넘쳐 흐른다는 표현으로 자연의 치유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이 많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형식으로 영원한 순환을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연이 '나'를 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시간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적 확신을 보여준다.

## 4. 결론

그동안 한하운의 시는 한센병이라는 특수 상황에 국한되어 해석한 경우가 지배적이었고 생애 동안의 정치적 성향이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이 논문은 한하운 시에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화 과정이 묘사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또 그러한 정신화 과정에 어머니의 안정적 애착과 정서적 지지가 기반을 두었음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하운 시에서 길이라는 중간 대상이 주는 의미를 탐색했다. 첫 번째 길의 의미는 병든 몸으로 사회에 나아가 갖게 되는 고통스러운 경로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공간은 사회에도 사적 공간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공간이다. 시적 자아는 길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객관화하는 정신화 과정을 겪는다. 또 두 번째 길은 어머니의 애착을 깨닫고 그와 동일시하는 길이다. 길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것은 어머니가 준 애착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하운의 시에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고통받는 자아를 대상화하는 과정과 정신화되는 과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유일한 시가 한하운 시이다. 그것은 한하운의 고통이 남달랐고 극복하는 과정이 시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하운은 시를 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힘과 카타르시스를 얻었으며 그러한 과정이 시 속에 투영되어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 세계를 이룰 수 있었다. 다루지 못한 세밀한 연구는 다음 연구로 미룬다.

■주제어 : 한하운의 시, 자기 표상, 정신화, 중간 대상, 소리의 싸개, 심리 치유.

## 〈참고문헌〉

### 1. 기본서

한하운, 『한하운전집』, 인천문화재단 한하운전집 편집위원회, 문학과 지성사, 2010.

### 2. 논저

김려실, 「냉전과 박애」,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김신정, 「고통의 객관화와 “인간”을 향한 회구 : 한하운의 삶과 시」, 『현대문학의 연구』 7, 한국문연구학회, 1996.

도널드 위니컷,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비드 윌 브리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미셸 클레어 지음, 안석모 옮김,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박학사, 2014.

박민규, 「한하운 사건 이후의 한하운과 시적 세계 변모」, 『우리문학연구』 47, 우리문학회, 2015.

박연희, 「한하운 시에 나타난 월남민 의식과 문둥이 표상」, 『사이』 23, 국제한국문학 문화학회, 2017.

서영주, 김영근,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2018.

오덕애, 「근대의학 담론이 ‘한센병’에 미친 영향 - ‘한하운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학회, 2019.

이문희·이수림, 「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2020.

임지연, 「아픈 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하운 문학에 나타난 고통과 치유의 자기 서사」, 『한국언어문화』 77,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정우택,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정유선, 「한하운, ‘시인’과 ‘국가」, 『한국시학연구』 58, 한국시학회, 2019.

- 조은하, 「한하운의 시의식 변모 양상」, 『한국시학연구』 56, 한국시학회, 2018.
- 최명표, 「한하운 시의 정치시학적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 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최원식, 「한하운과 『한하운 시초』」,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 피터 포나기, 반건호 역,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 안양: 빈센트, 2005.
- 한순미, 「'서러움'의 정치적 무의식-역사적 신체로서 한하운의 자전」, 『사회와 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2012.
- Salman Akhtar, *Mental Pain And The Cultural Ointment Of Poet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000.

<Abstract>

## A Study on the Path of Han ha-un Poetry and the Healing of Inner Wounds

Yoon, su-ha

Han Haun was recorded as the first poet with leprosy in Korean literary history. In recent years, scholars have focused on completeness due to criticism that the name "Poet of Hansen's Disease" can give preconceived notions about Han ha-un poet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is poetry, these studies have extensively described the disease, along with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his poetry. Though these studies have succeeded to provide affirmation to his ailing body, research on his inner pain and the ways in which he could come to terms with it remains largely understudied.

This paper noted the mentalization process to overcome psychological pain described in Han Haun poetry, by revealing that stability of his mother's attachment and emotional support as the primary factors contributed to the process. In his poem, he clearly presented the ways in which he could overcome hardships in the extremely harshly circumstances.

Han Haun's poetry reflects his ways to objectifying and spiritualizing the suffering self. The poet gained power to endure pain and catharsis while writing poetry, and on the other hand, such a process was projected into the poem, which allowedg him to form a unique poetry world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poets or poetry. Han ha-un's poetry and more detailed research, which could not be covered, are postponed to the next study.

**【Key words】** : Han ha-un's poetry, Self-expression, Intermediate objects, Mentalization, Sound Envelope, Psychological healing

---

---

**윤수하**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자우편: yoonsuha@daum.net

---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3년 11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11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